

“내 집처럼 편하게 사찰서 쉬다가세요”

울산 황룡사, 3월 15일 문화공연봉사 첫 개최

공간 뒷문을 열어 울산 황룡사 주지 스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도록 해야 한다’며 봉사자들에게 당부했다. 황룡사 공간 내 좌측에 위치한 문은 큰길로 바로 연결된 곳으로 누구나 황룡사로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통로이다. 무료급식을 한 달 전부터 시작했다는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사찰을 집처럼 찾고 언제든지 편히 쉬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함께 춤을 추고 음악이 끝날 때마다 앵콜을 외치고 환호했다.

공연을 본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즐겁게 편히 있었으며 절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니 마치 사랑방이 생긴 것처럼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종자(79) 씨는 “기도 수행처로만 생각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사찰에 흥겨운 음악이 넘치니 기분이 좋다. 집에서 무



울산 황룡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봉사’를 3월 15일 개최했다.

분위기로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임소문을 많이 내야 겠다”고 즐거워했다.

주지 황산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도 갈 곳이 없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이 자리는 부처님이 계신 정토”며 “부처님 앞에서 놀고 즐겁게 계시는 것도 수행이다.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며 집처럼 편히 생각하고 쉬는 연수 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황룡사는 전체 신도 가운데 청소년과 30~40대 비율이 총 70%다. 젊은 불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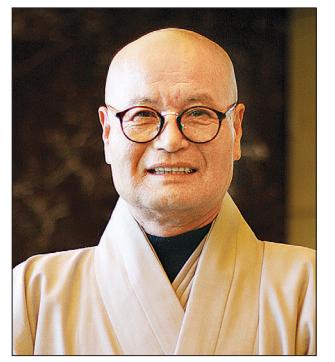
많은 도량으로 유명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은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을 위한 봉사와 포교활동의 원을 세우며 이번 문화공연과 무료급식을 마련했다. 앞으로 황룡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봉사 홍보를 위해 미리 노인 회관을 방문하고 사찰 차량도 운영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초대할 계획이다. 무료급식소는 현재 매일 낮 12시~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이며 지역 어르신 60여 명이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대승불교 참된 뜻 실천위해 노력할 터”

태고종 경남총무원 제 16대 원장 법성 스님

“대승불교의 아름다운 뜻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불교가 복지와 문화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손 잡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불교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인가를 받았다. 지금 경남 총무원 활동을 펼치기엔 장소가 협소해 총무원 원사를 불사하고자 한다”며 “총무원 원사는 복지 시설과 경남강원·불교대학 운영을 위한 장소로 회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성 스님은 1979년 청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자비마을을 운영하며 지역 내 노인과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을 운영했다. 현재 경남 합안 백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태고종 경남교구 총무원은 3월 12일 창원 풀만 호텔에서 총무원장 이취임식 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법성 스님(사진)은 복지를 강조하며 대승불교의 자비 실천을 역설했다.

법성 스님은 “현대와 미래에 걸맞는 불교의 모습은 바로 복지다. 중생을 위한 자비실천을 담은 대승불교의 뜻이기도 하다”면서 “제가 가진 복지 노하우를 더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소임 기간 중에 총무원 원사를 건립하고 교육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성 스님은 “작년 10월

하성미 기자

“우리 아이들 스님과 인연 맺어요”

해원정사, 16일 유발상좌 수계식

부산 해원정사(회주 원하)가 출가 제일을 맞아 3월 16일 유발상좌 수계 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아래>

회주 원하 스님과 인연 맺기 위해 유아와 부모 10여 명이 함께 한 유발상좌 수계법회에서는 매년 출가제일을 맞아 10년 동안 봉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계 받은 유아는 1000여 명에 이른다. 수계법회는 한글로 쓴 부모은중경 독경으로 시작해 유발상좌 의미 설명 및 수계식과 계첩 수여로 진행됐다.

원하 스님은 “스님과 인연 맺는 것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유 발상좌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주 고 있다”며 “수계를 받고 범명을 받은 아이 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이 마음 에 남는다. 오늘 수계를 통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산청 내원사, 4월 9일 국보 승격 기념 법회

산청 내원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국보로 승격·지정됨을 축하하는 법회 가 봉행된다.

산청 내원사(주지 영산)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 봉축기념법회를 오는 4월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보승격 봉축 기념법회는 1부 봉축 법회와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법회에서는 대웅전과 비로전 육법공양,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축하 법문이 마련된다. 축하공연은 산청 지역 공물패 길놀이 시작으로 판소리 및 국악인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주지 영산 스님은 “법석을 여는 가장 큰 이유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많은 불자와 지역민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국보인 부처님을 모시는 데 어울리는 전각을 새롭게 지어 나가고 있는데 찾는 모든 이들이 환희심을 얻기를 바란다”

비로자나불,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국보 제233-1호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 주지 영산 스님이 설명하고 있다.

고 전했다.

국보 제233-1호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86년 납석제호(蠟石製壺)가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납석제호는 내원사 비로자나불상의 좌대에서 나온 것으로 비로자나불의 조성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납석제호 명문에는 '영태 2년(766) 병오 7월 2일에 범승(法勝), 법연(法緣) 두 승려가 두은애랑(豆溫哀郎)의 추복(追福)을 위하여 석조비로자나불을 조성하고 무구정광다라니를 함께 봉안하여 석남암사(石南巖藏) 관음암(觀音

巖)에 안치하였다. 이 공덕으로 두은애랑의 영신(靈神)과 발원인 두 승려와 함께 일체중생 모두가 삼악도의 업을 멸하고 성불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제작연대 영태 2년은 신라 혜공왕 2년(766년)을 의미해 한국 현존 최고(最古)비로자나불로 판정됐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1990년 내원사 비로자나불도 보물로 승격되었다가 지난 1월 7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했다.

하성미 기자

‘운수사 대응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

3월 12일 개최... 부산 最古 목조물 의미

부산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89호로 지정된 운수사(주지 유정) 대응전의 보물 지정서 전달식이 3월 12일 개최됐다.

주지 유정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은 △개회사 △문화재보물지정서 전달 △환영사 및 경과보고 △축사로 진행됐다.

운수사 주지 유정 스님은 “보물로 지정되기 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이성갑 사후구신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신도님 들께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운수사 대응전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하던 당시 송관이 떨어지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1683년 기와 중수, 1771년 3차 중수 등 기록이 적힌 송관을 근거로 주지 유정 스님은 문화재에 요청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부산 운수사 대응전은 2013년 전면 해체 수리를 실시하고 1647년 공사를 시작해서 1655년 완공했음을 확인했다.

운수사 대응전은 부산 지역 현재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됐다.

하성미 기자



운수사 주지 유정 스님은 3월 12일 대응전 보물 지정서를 문화재청에게서 전달받고 있다.

<p>연등속지 백색 1묵음</p> <p>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p>	<p>한지 칼라등지</p> <p>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p>	<p>PVC등표 (100매)</p> <p>내지 12,000원 친계부착 20,000원 *크기 : 8.5cm×21cm</p>	<p>봉축연꽃리본(100개)</p> <p>일반 18,000원 고급 27,000원</p>
<p>일반연잎 6,000</p>	<p>바림연잎 7,000</p>	<p>한지바림연잎 8,000</p>	<p>90,000원</p>
<p>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cm (50구) @ 65,000 23cm (50구) @ 65,000 25cm (50구) @ 65,000 30cm (50구) @ 65,000 35cm (50구) @ 70,000 40cm (50구) @ 73,000 50cm (50구) @ 75,000 1 m (50구) @ 90,000 2 m (25구) @ 80,000 			

민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청도비닐만월등 (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 (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 (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 (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 (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 (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 (12cm)(100개) 350,000원

금피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중 선택.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